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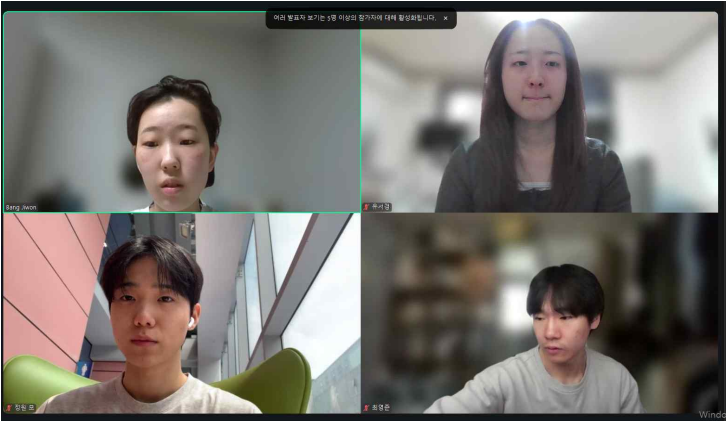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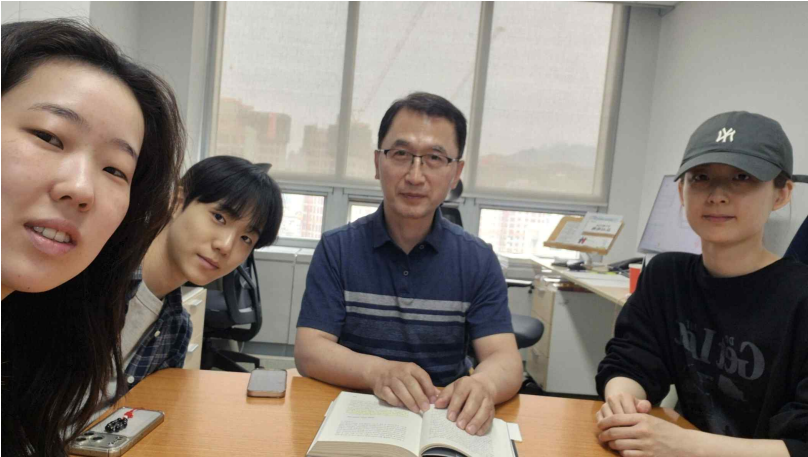


	일시	4월 28일 13 : 00 학술정보관 그룹스터디실 4층	
	참여 학생	클럽원 정보	참석 여부
		방지원(2594006)	○
		모정원(2394008)	○
		유서경(2471471)	○
		최영준(2354005)	○
		이수민(2694003)	○
	진도	도서명: 세계미래보고서2026-2036	진도페이지: p.141 ~ p.228
2주차	토론 내용	 <p>[좌측부터 방지원, 유서경, 최영준, 이수민, 모정원]</p> <p><주제:AI는 그림을 잘 그리지 못해도 프롬프트 하나로 뛰어난 그림을 그릴 수 있고, 못 쓴 글도 작가 수준으로 바꿔준다. 따라서 시장에 인간과 AI의 작품이 동시에 나올 것이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작품을 어떻게 판단하고 소비할 것인가?></p> <p>방지원: 사람들은 좋은 원곡이 있음에도 '커버곡'이라고 불리는 다른 가수가 부른 노래도 찾아 듣는다. 같은 악보를 모두가 가지고 있어도 그걸 소화하는 사람에 따라 차이를 만들어내고 소비자는 그 차이에 반응한다. 따라서 AI는 새로운 느낌을 주는 도구일 뿐이고 사람과 AI를 이용하는 사람이 모두 공존할 것이다.</p> <p>모정원:창작물을 소비하는 인간 입장에서 창작물은 그 안에 들어있는 작가의 생각과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저 미적으로만 소비되는게 아닌 그 창작자의 생각과 내 자신의 생각과 비교하고,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비로소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그 작품을 소비하게 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지금 내 생각은 ai가 아닌 인간의 작품에 손을 들어 줄 것 같다.</p> <p>유서경:만약 인간의 작품에 대한 수요가 유지된다면 사람들이 직접 보는 앞에서 그리거나 타임랩스 등 자신이 작업한 과정 영상을 따로 찍어 증거를 남긴 채로 작업을 진행할 것 같다고 생각한다. 이조차도 AI로 조작 할 수 있지만 적어도 이렇게 기록을 남김으로써 1차적인 방어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p> <p>최영준:AI 기술로 누구나 쉽게 수준 높은 작품을 만들 수 있게 되면서 예술의 접근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람들은 단순히 결과물의 완성도뿐만 아니라 창작의 과정과 의도 등을 고려해서 예술 작품을 소비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간의 창작 욕구는 사라지지 않고 예술 작품에 대한 인간의 수준이 높아지는 결과가 생길 것으로 생각한다.</p> <p>이수민: AI가 발전할수록 인간 창작물은 희소성을 갖게 되어 오히려 더 주목받을 것 같다 부유한 소비자일수록 흔한 것보다 희귀한 것을 소유하려 하기 때문에 AI 창작물이 넘쳐나는 시장에서 인간의 작품은 더 높은 가치를 지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p>	

	일시	5월 12일 13 : 00 온라인(zoom)	
	참여 학생	클럽원 정보	참석 여부
		방지원(2594006)	○
		모정원(2394008)	○
		유서경(2471471)	○
		최영준(2354005)	○
		이수민(2694003)	○
	진도	도서명: 세계미래보고서2026-2036	진도페이지: p.229 ~ p.296
3주차	토론 내용	 <p>[좌측부터 방지원, 유서경, 모정원, 최영준, 이수민(화면 조정으로 잘림)]</p> <p><주제:AI시대에 개별 맞춤 교육이 가능할 수 있다. 구체적인 숫자로 학생을 판단하는 수능과 같은 체제의 종말을 예측한다. 이때 고용인 관점에서 구체적인 숫자, 순위, 등급 외에 어떤 것으로 어떻게 사람을 판단할까?></p> <p>방지원: 교육을 맞춤형으로 받더라도 그걸 제대로 이수했다는 증명은 여전히 필요하다. 학생을 평가하는 사람들도 기초적인 지식을 지니고 있는지 여전히 물어볼 것이다. 그렇다면 면접이나 서술형 문제를 푸는 세상에서도 학생의 답이 해당 학교의 결과 맞는지를 수치로 측정하려는 움직임은 여전할 것이다.</p> <p>모정원:우선 구체적인 숫자로 학생을 판단하는 수능과 같은 체제의 종말에 대한 전제에 반하는 입장이다. 다른 나라는 모르겠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수능, 학점으로 사람을 평가하는데 익숙하고 그 편이 그 사람의 성실도(여기서 말하는 성실도는 하기 싫은 일을 버티고 자신의 미래를 위해 꾸준하게 해낼 수 있느냐 뜻이다.)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사람을 숫자로 평가하는 기조는 미래에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만약에 사람을 숫자, 순위 등등으로 평가하지 않는 시대가 된다면, 그 사람의 능력, 그가 만든 창작물, 성격 등을 판단하고 고용할 것이라고 생각한다.</p> <p>유서경:이때만큼은 암기하는 지식보다는 활용 능력을 중심으로 둘 것이라고 예상된다. 특히 인성이 최우선 평가 기준이 되고 그 다음으로는 개인의 재능과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방식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예상된다.</p> <p>최영준:AI를 활용한 맞춤형 교육이 확대되면 기존처럼 점수와 등급 중심의 평가 방식은 점점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개인의 능력치를 보다 자세하고 정확하게 판단하고 기록하는 시스템이 발달해, 기업이 이를 평가 근거로 활용하는 데에도 유용할 것이다. 또한 문제 해결 능력과 창의성 등 다양한 역량을 종합적으로 보는 방향으로 변화할 것이라 생각한다.</p> <p>이수민: 점수라는 객관적 기준이 사라지면 결국 실제 결과물을 보여주는 포트폴리오와 사람을 직접 검증하는 면접이 강화될 것 같다.</p>	

	일시	5월 19일 13 : 00 탐구관 524호	
	참여 학생	클럽원 정보	참석 여부
		방지원(2594006)	O
		모정원(2394008)	O
		유서경(2471471)	O
		최영준(2354005)	X
		이수민(2694003)	X
	진도	도서명: 세계미래보고서2026-2036	진도페이지: p.297 ~ p.377
4주차	토론 내용	 <p>[좌측부터 방지원, 모정원, 이강신(교수님), 유서경]</p> <p><주제:자동차에 AI를 도입하면 그들끼리 최적의 경로를 찾아 교통체증을 혁신적으로 감소할 수 있다고 예측한다. 또한, AI가 직접 자동차를 몰기에 면허 기준이 완화되고, 많은 사람이 자동차를 몰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렇다면 교통환경은 개선될 것인가 더 악화될 것인가?></p> <p>방지원:최적화된 경로를 찾고 탑승자의 일정을 관리할 수 있다면 자동차 구독제, 혹은 자동차 공동구매와 같은 형태가 생길 것이다. 자동차는 구매 유지 등에 비용이 많이 들기에 이를 감소시키려는 움직임과 더불어 자동차를 타려는 수요가 높아지는 현상이 동시에 일어날 것이다. 따라서 도로에 자동차가 늘어날 것이다.</p> <p>모정원:나는 완화/체증 둘 다 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고르기 힘들다. 완화의 입장은 다른 차 ai의 경로, 주행에 ai를 사용하지 사람들까지 전부 다 포괄적으로 계산하는 ai가 생긴다면 교통체증이 전혀 없는 도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된다. 체증의 입장은 자율주행 시스템이 모든 차에 보급되어 차를 타는 사람이 많아진다면 도로 위에 차가 많아져 체증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고, 또한 올드카에 대한 소유욕이 있는 사람이 있듯이 그 시대에도 인간 자신이 운전하는 사람이 꽤 많다면 그 사람들의 생각까지 ai가 계산하긴 무리라고 생각이 되어 체증이 더 심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p> <p>유서경:저는 완화된 교통환경으로 변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이유로 AI끼리 최적의 경로를 찾는다는 것은 시간도 포함하여 조절하는 것일 텐데 이는 '지금보다 언제 출발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식으로 의견을 내어 교통 분산 효과를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AI가 최적의 경로를 조절하다보면 교통체증이 완화될 것이라고 생각한다.</p>	

	No.	클럽원 정보	후기 내용
활동 후기	1	방지원 (2594006)	네 번의 회차를 지나면서 미래에 대해 상상해 보고 대화를 나눌 수 있던 소중한 시간이었다. 평소에는 말도 안 되는 가정이라고 치부했을 이야기를 책의 내용을 공유한 사람들과는 서로의 뜻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었다. 다음번에도 이런 기회가 있다면 또다시 경험해 보고 싶은 시간이었다.
	2	모정원 (2394008)	독서 토론 활동을 통해 단순히 책을 읽는 것을 넘어, 토론을 염두에 두고 내용을 분석하며 읽게 되어 평소보다 훨씬 깊이 있게 책에 몰입할 수 있었다. 또한 교수님, 그리고 같은 학과 학우들과 함께 AI 시대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며 생각의 폭을 넓히고 앞으로를 대비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3	유서경 (2471471)	책을 읽고 진행한 토론에서 팀원들의 다양한 시각도 흥미로웠지만 교수님의 또 다른 시각이 인상 깊었다. 내용이 무거워져 걱정된 상황도 토론이 밝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어 자연스럽게 주제를 나눌 수 있어 인상적이었다. 팀원들의 의견을 통해서도 생각지 못한 부분의 장단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렇기에 단순히 읽기만 하던 것에서 벗어나 비판적 사고로 독서하는 방법을 알 수 있는 시간이었다.
	4	최영준 (2354005)	독서모임은 이번이 처음인데 다른 사람들과 같은 책을 읽고 그 책에 대해 얘기를 하는 것이 재미있었다. 준비한 주제를 바탕으로 들어본 팀원들의 답변이 책 내용을 이해하는데 새로운 관점을 주었고 더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었다. 중간중간 교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얘기도 흥미로웠다. 결국 AI 시대를 대비해 여러 방면의 의견을 들어보고 그 방면들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5	이수민 (2694003)	책을 읽으면서 기술의 발전 속도가 예상보다 훨씬 빠르다는 점에서 놀라움과 동시에 불안감도 들었는데 다들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았다. 그래서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발전시키는 게 더 중요해질 것 같다.